

제2외국어/한문 영역 [한문 I]

제 5 교시

성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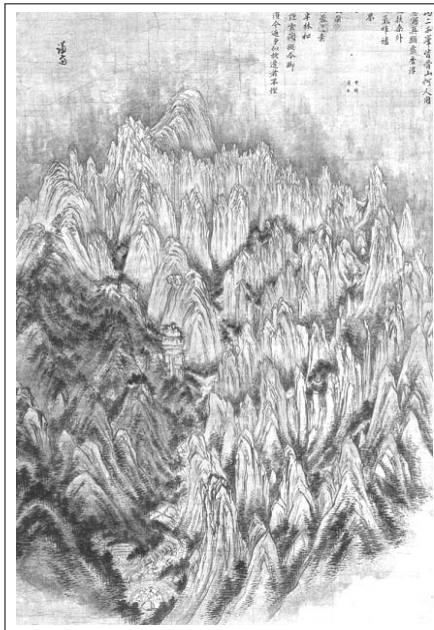
수험번호

2

1

-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인지 확인하시오.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정확히 기입하시오.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쓰고, 또 수험번호와 답을 정확히 표시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1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씩입니다.

1. 그림과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에 해당하는 한자는? [1점]



한옥: 이 그림은 실제로 금강산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며 그린 거래.

채원: 아! 그래서 산 전체를 모두 다 그려 낼 수 있었구나.

현희: 맞아. 그래서 이 그림의 제목이 '金剛(㉠)圖'야.

- ① 田 ② 全 ③ 典 ④ 前 ⑤ 展

2. 한자의 음이 같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점]

〈 보 기 〉			
ㄱ. 士	ㄴ. 仕	ㄷ. 吉	ㄹ. 壯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 사전에서 한자를 찾았을 때 ㉠, ㉡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점]

(㉠) 4획 【房】 총 8획 방
자해 방, 집

貝 (㉡) 4획 【賓】 총 14획 빈
자해 손님

- | | | | |
|-----|---|-----|---|
| ㉠ | ㉡ | ㉠ | ㉡ |
| ① 戶 | 7 | ② 方 | 7 |
| ③ 戶 | 8 | ④ 方 | 8 |
| ⑤ 戶 | 9 | | |

4. 대화의 내용에 해당하는 한자는? [1점]



- ① 鳥 ② 虎 ③ 常 ④ 鹿 ⑤ 象

5. 두 자를 합하여 하나의 한자를 만들 때 ㉠, ㉡의 음으로 옳은 것은?

○ 手 + 寺 = (㉠) ○ 君 + 邑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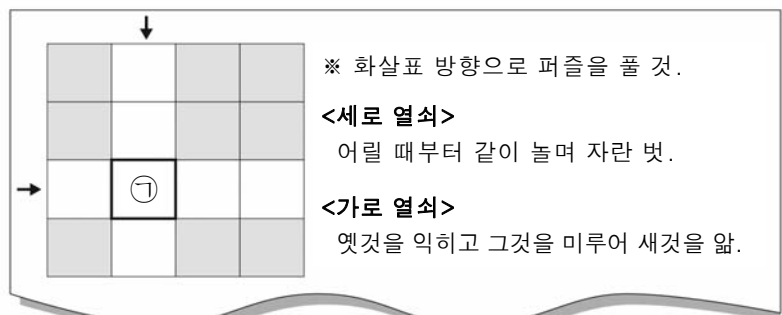
- | | | | | | |
|-----|---|-----|---|-----|---|
| ㉠ | ㉡ | ㉠ | ㉡ | ㉠ | ㉡ |
| ① 지 | 읍 | ② 지 | 군 | ③ 사 | 읍 |
| ④ 사 | 군 | ⑤ 사 | 응 | | |

6. ㉠의 한자표기로 옳은 것은? [1점]



- ① 靜肅
② 華麗
③ 勤儉
④ 倍加
⑤ 配慮

7. 성어 퍼즐의 ㉠에 해당하는 한자는? [1점]



- ① 少 ② 高 ③ 故 ④ 遊 ⑤ 新

8. 글의 내용으로 보아 ㉠에 알맞은 것은? [1점]

(㉠)은 원래 ‘물결이 퍼져나가 멀리까지 미치다.’라는 뜻이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어떤 일의 영향이 다른 데로 전해진다.’라는 의미로 사용한다.

- ① 波及 ② 水準 ③ 事端
④ 消息 ⑤ 傳送

9.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에 들어갈 성어로 알맞은 것은? [1점]

새로 임명될 장관 후보자로 여러 사람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데요.

네. 저도 그런 (㉠)을 들었습니다. 곧 훌륭한 분을 정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 ① 背水陣 ② 如反掌 ③ 下馬評
④ 紅一點 ⑤ 登龍門

10. 글의 내용에 해당하는 성어는? [1점]

김담은 효성이 지극하여 아버지를 섬기는 정성이 극진하였다. <중략>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어 일찍이 산에 올라 산소의 비석을 만들고자 하였는데, 때마침 한창 얼어붙은 겨울이어서 돌을 쪼아내지 못하였다. 안타까운 마음에 공이 돌을 붙들고 통곡하니 돌이 갑자기 갈라지며 우레와 같은 소리가 났다.

—『성소부부고』—

- ① 大同小異 ② 積小成大 ③ 至誠感天
④ 自初至終 ⑤ 先公後私

11. 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한 것은?

看晨月，坐自夕。

—『열상방언』—

- ① 효룡: 다른 사람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야 해.
② 민우: 작은 일이라도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어.
③ 진술: 현실에 안주하면 자기 발전을 이루기 어렵지.
④ 태호: 때를 맞추지 못하고 너무 일찍 서두르면 안 돼.
⑤ 시은: 다른 사람을 공경해야 나도 대접을 받는 거야.

12.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 ㉡의 한자 표기로 옳은 것은?

옛날에는 조선왕조 실록을 사고에 보관했다는구나.

어떻게 실록을 생각 속에 보관할 수 있죠?

너는 ‘생각하고 공리하다.’라는 의미의 ㉠사고로 생각했구나. 내가 말한 ㉡사고는 ‘국가의 중요한 서적을 보관하던 서고’를 말한단다.



아! 그렇군요.

- ㉠ ㉡
① 史庫 思考
② 史庫 社告
③ 社告 思考
④ 思考 史庫
⑤ 思考 社告

13. 글의 내용으로 보아 ㉠과 의미가 가장 잘 통하는 것은?

무더운 어느 날 정조 임금의 침실에 있었는데, 건물의 처마가 매우 짧아 한낮의 햇볕이 뜨겁게 내리쬘었다. 그때 한 신하가 아뢰었다.

“이 방은 협소하여 한여름이면 너무 불편하니, 서늘한 곳에서 여름을 보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에 정조가 대답했다.

“㉠지금 이곳을 버리고 서늘한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 거기에 서도 참고 견디지 못하여 틀림없이 더 서늘한 곳을 생각하게 될 것이다. 이곳에서 잘 참고 견디면 바로 이곳이 서늘한 곳이다.”

—『일득록』—

- ① 騎馬，欲率奴. ② 養子息，知親力.
③ 窮人之事，飢亦破鼻. ④ 天之方崩，牛出有穴.
⑤ 我腹既飽，不察奴飢.

[14~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安而不忘危，存而不忘亡，治而不忘(㉠). 是以身安而國家可保也.

—『주역』—

14. 위 글의 내용으로 보아 ㉠에 알맞은 것은?

- ① 平 ② 短 ③ 賞
④ 輕 ⑤ 亂

15. 위 글의 의미와 가장 잘 통하는 것은?

- ① 愚公移山 ② 合縱連橫 ③ 有備無患
④ 唇亡齒寒 ⑤ 巧言令色

16. 글의 내용과 의미가 통하는 것은?

선한 것은 배워 따르고, 악한 것은 고쳐서 멀리한다. <중략>
나쁜 사람을 보면 ‘나는 절대로 저러지 말아야지.’하고 다짐을
한다. 좋은 행실을 보면 ‘어찌해야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하며 본받으려고 노력한다.

-『청성잡기』-

- ① 幼而不學, 老無所知.
- ② 積善之家, 必有餘慶.
- ③ 施恩勿求報, 與人勿追悔.
- ④ 待有餘而後濟人, 必無濟人之日.
- ⑤ 擇其善者而從之, 其不善者而改之.

17. 글의 내용으로 보아 ㉠에 알맞은 한자에 해당하는 물건은?

貴人有(㉠), 老年觀書, 小字看大.

-『격치경원』-



[18~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滿招損, 謙受益.

-『서경』-

(나) 人生不學, ㉠如冥冥夜行.

-『명심보감』-

(다) 河海, 不擇細流, 故能就其深.

-『사기』-

18. 의미상 ㉠과 바꾸어 쓸 수 있는 것은?

- ① 只 ② 而 ③ 若
- ④ 可 ⑤ 莫

19. (가) ~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가)의 ‘招’는 ‘부르다’로 풀이한다.
- ② (가)의 앞 구와 뒤 구는 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
- ③ (나)의 ‘冥冥’은 ‘어두운 모양’을 나타낸다.
- ④ (다)의 의미는 ‘桑田碧海’와 통한다.
- ⑤ (다)의 ‘細流’는 ‘聖人’과 짜임이 같다.

[20~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子曰：“篤信好學, 守死善道. <중략> 天下有道則㉠見, 無道則隱.
邦有道, 貧且賤焉, 恥也, (㉡).”

-『논어』-

20. ㉠의 풀이로 옳은 것은?

- ① 보다 ② 당하다 ③ 소개하다
- ④ 반성하다 ⑤ 드러내다

21. 위 글의 내용으로 보아 ㉡에 들어갈 말의 의미로 알맞은 것은?

- ① 임금은 백성들이 가난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임금은 나라의 미래를 위해 인재 양성에 힘써야 한다.
- ③ 임금은 백성이 천하에서 가장 귀한 존재임을 알아야 한다.
- ④ 나라가 부강해야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을 당하지 않는다.
- ⑤ 나라에 도가 없는데 부유하고 귀하다면 부끄러운 일이다.

[22~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每歲八月十五日, 男女共聚㉠歌舞, 分作左右隊, 曳大索兩端,
以決勝負. 索若中絕, 兩隊仆地, 則觀者大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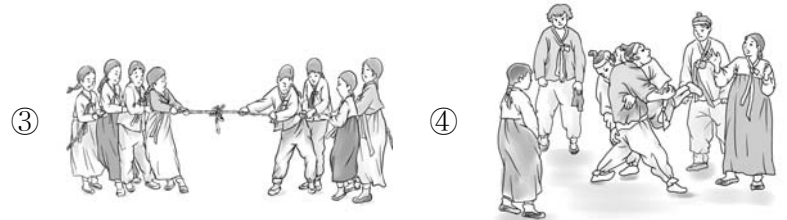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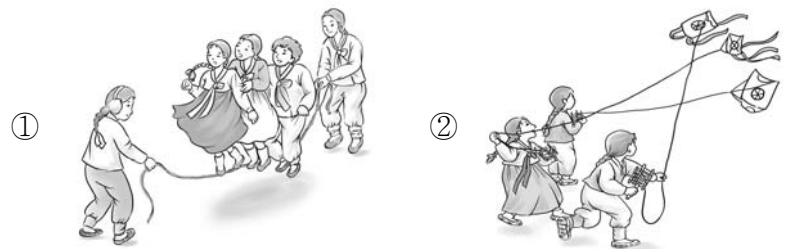
* 聚(취): 모이다 * 曳(예): 끌다 * 仆(부): 넘어지다

-『동국여지승람』-

22. ㉠의 독음으로 옳은 것은? [1점]

- ① 가무 ② 고무 ③ 군무 ④ 가곡 ⑤ 가사

23. 위 글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16	28
----	----